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압박에 있는 유다

(호세아 12:1 - 14)

원로목사 이종윤



호세아 선지자가 50여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각각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 그 아들 르호보암은 강경책을 쓰며 일을 급하게 처리하다가 남과 북이 갈라지는 슬픈 역사가 생겼습니다. 북쪽의 10족속과 남쪽의 2족속이 각각 나뉘어 나라가 분열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넘어가기까지 200년간 남북은 분단상태에 빠져 있었고 고통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이후 70여년이 넘도록 분단의 비극을 안고 있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200년이 넘도록 갈라져서 동족간에 싸움을 거듭하는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 유다의 죄

유다는 이스라엘의 죄와 비슷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애굽에 조공을 보내면서 아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호4:1). 이스라엘은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유다에 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로 그들은 모태에서 부터 싸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속이는 것은 야곱의 대명사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성품은 거짓으로 꺾쳐서 하나님과도 싸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싸웠고 평생 속이는 일을 하며 마침내는 하나님과도 싸운 사람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뉘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 하셨나니"(4절).

한편 야곱은 울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간구는 히브리어로 '이드카넌'이라고 읽으며 긍휼을 비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기는 기도, 우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여 마침내는 환도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새이름을 받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 호세아의 권면

"여호와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5-6절).

만군의 하나님이란 수만의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타인에게 공의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유다가 변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실수하고 범한 죄를 책망 받았던 것처럼 유다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인애로 맞이 해 주신것 처럼 유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3. 후기 역사

선지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상을 보여주는 사역을 합니다(11절).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텐데 그들은 여전히 뿔발질하며 하나님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한 에브라임은 야곱이 압박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를 놓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않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12:1)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어 내시는 사역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하십니다.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하는 일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14절).

결국 에브라임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야곱을 통해서 배운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4월 16일 부활절 I II III 예배 시 성찬식

고난주간 새벽기도는 교회 사정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하며 이종윤 원로목사가 담당한다.

4월14일(금) 오후 8시 성금요일 기도회로 모인다. 부활절인 4월 16일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

금을 드린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순결서약식이 있으며,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 오치열 장로 장로, 지휘 : 백경화 권사)가 준비한 헌텔의 '메시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017년 순결서약식

4월 16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신청 : 교육 부서별로

2017년 순결서약식이 4월 16일(부활절)주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기 바라며, 오늘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4월 세례식 거행

4월 세례식이 4월 5일 저녁 7시 수요일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는 세례식 거행을 위해 수요일예배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 문의사항 임승한 집사(010-7743-3223)

예배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예배' II

-예배, 하나님 영광 주권 위한 것-



이현웅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는 예배의 문제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로 이해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예배 현장마다 영적 생동력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가?

셋째, 장로교 예배는 '설교'를 예배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는 개신교 전통에 따라 예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교 설교자들은 예배를 위한 준비와 함께 설교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예배 현장에서는 오늘날 사도행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넷째로 장로교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요시한다.

기독교 예배는 성령의 사역(work)이다. 즉 인간들에 의해 준비된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신령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예배인도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예배의 원동력

임을 알고, 예배 시간을 통해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

예배, 교회 존재의 근거

신학교에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교회가 1년 구제와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령 교회가 1년 이상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 1년 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예배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근간이요, 개인의 신앙을 보존케 하는 토대가 된다. 교회는 예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계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장로교회와 목회자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교회는 이 일을 가장 우선으로 알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다. 예배와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바쁘게 따라 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목회자는 예배와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과 함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선교, 교육, 봉사, 행정, 상담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는 예배의 문제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로 이해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예배 현장마다 영적 생동력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예배 현장은 어떠한가?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기독교공보 제3058호
2016년 9월 10일(토)에서 발췌-
(다음주 계속)

천국시민양성 - 은빛찬양대

은빛찬양대가 부를 '새 노래'



정병무 은빛장로 (은빛찬양대)

잔잔했던 바다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게 된 우리 교회는 “안심하라, 말씀의 하나님만 믿노라” 고백하던 바울사도의 믿음을 본받아 한마음 한 뜻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빛찬양대도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용기를 내어 4월 첫 주 수요일에 은혜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은빛찬양대원의 속사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선동과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한 영혼들, 세상권세 잡은 자들에게 유혹된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교우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외치고 머리와 가슴에서는 지워버린 행위들이 현실에서 비일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이 땅위의 법과 질서와 도의가 말살되는 오늘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주님의 긍휼만 바라보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아의 심정으로 우리 은빛 찬양대가 “새 노래”를 위하여 하나로 모였습니다. 65세 이상부터 고령의 노구들이지만 주님의 대명인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픈 용사들의 찬양합창입니다. 남은 그루터기들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찬양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협력을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신발 끈을 동여매는 우리 서울교회에 다 함께 밀거름이 되기를 축원드리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천국시민양성 - 호산나대학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신 계획



차민주 (호산나대학)

안녕하세요, 저는 2017학년 호산나대학 신입생 차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대학을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합격은 했지만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언어장애가 있으며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중국분으로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고 계십니다.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서울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무사히 호산나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주신 장학금 100만원 소중히 쓰겠습니다. 대학에 온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너무 어렵고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해 학교에 다니는 일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대학에 오니 선배들도 잘해주고 친구도 생기고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저보다 어려운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개강 후 첫 채플 시간에 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저를 향하신 기뻐신 계획을 기대합니다. 든든한 주님이 함께 계시는 호산나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차민주 학생이 입학 할 당시 서울교회 재정의 정상화를 소원하며 이 글을 썼지만 현재 모든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민주 학생에게도 장학금은 지급되지 못한 상태이다.**



사순절의 묵상

신동기 권사 (12교구, 시인)

그대
온몸
그 피로 타올라
하늘에 걸어놓고

흑암과 혼란
세상 혈관 속으로
당신의 생명
도도히 흘러
새벽을 연다

망령된 시간
억측과 불신
결박 당한 하늘 옷자락
정의와 진리의 땅
서울교회여

폴리스 라인에
목 졸린 대치동 언덕
끓는 가슴 새벽이슬
수직으로 피어올라
붉어진 순교의 부흥
지축을 흔든다

물러설 땅 없노라

영혼의 단단한 근육
속살 열어
시린 명치끝으로
간곡히 피어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거룩한 산 제사여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늘 땅을 이어주는
당신의 죽음
그 피로 열리고
그 피로 가득 찬
서울교회

저주는 축복으로
상실은 구원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당신의 구명 난 손위에
간절히 올려 드리나이다
내 사랑 서울교회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매주일 극도의 소요 속에서도 서울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참여배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해지는 박목사측 교회앞 소요는 서울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막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는 돌계단 집회의 한계를 느낀 저들이 점점 안정되고 숫자가 늘어가는 서울교회 예배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당회원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 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어서 지금은 개개인이 예배의 자리와 교회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당회는 2015년 여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박노철목사의 불성실한 설교준비와 목회 태도에 대해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견 수제 간식은 업무공정상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종이고 대학 내 공장 건물이 있어 최소의 설비비용(창업 초기 비용으로 건조기, 냉장고, 카터기, 분쇄기, 및 진공포장기 등의 저 비용으로 시작 가능함)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내 공터를 이용하여 애견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해 생산 원가 절감 및 소비자들로부터 유기농 간식의 신뢰감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제간식 전문 인력 확보와 판로개척에 외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호산나대학에서 만든 애견 수제간식을 보고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아 대형매장에서 판매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산나대학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제 애견 간식을 보시고 애견을 키우시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구매와 주변분들에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 궁금하신 분은 031)585-9184로 문의 바랍니다.

해 편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노철목사는 권면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장로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며 상황을 호도시키고 자기 세력을 키워 원로목사 표절이라는 패륜아적 발상과 근거 없는 교회 재정비리를 이슈화하여 성도들을 선동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목사측은 서로 목적이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고, 그 불안감이 극렬한 시위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찍 출발하셔서 저들의 시위 시간대를 피해 안전하게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시고 혹 시위 중이라면 놀라거나 돌아가지 마시고 잠시 피해 있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들도 교사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교회학교 참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뚱신 교회를 바르게 지키지 못함에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올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올림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5일(수) 서울교회 세례식을 집례한다.

■ 지난 주 식사 및 간식 찬조: 신동기 황재연 정미연 최금숙곽숙 정금희 이정연 최종희 박정희 제1, 2권 사회

■ 주일식사 제공 : 김동건 신소영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2.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김성수 선생 (호산나 대학 취업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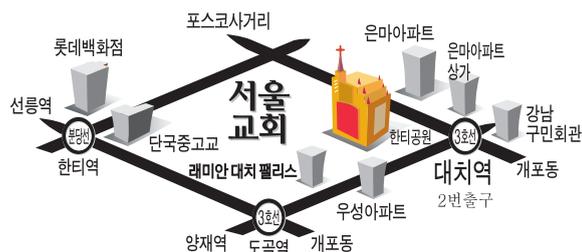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산나대학은 애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7학년부터 발달장애인 최초로 애견케어학과를 개설하였고 추가적으로 애견을 키우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반려동물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애견 수제 간식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